

역사의 풍량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던 우리네 삶이 새겨진 역사의 현장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SKETCH BOOK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대 도보 관광안내



A 닥밭골탐방길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가 많이 났었던 고을로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린공원, 북카페, 골목 벽화, 소망계단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B 임시수도탐방길

1023일간 대한민국 임시 수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부민동을 재발견 하며, 옛 임시수도의 과거 기억, 현재모습, 미래 희망을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C 1023 피란수도 흔적길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한국전쟁 시절 피난민들이 묘지의 비석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집을 짓고 살아 온 지역으로 시대의 아픈 기억과 희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 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역사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D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천마산기슭에 자리한 산복도로와 마을로 아미동, 초장동, 암남동을 아우르며 부산시 도심 전경, 남항과 영도를 비롯, 일본 대마도까지 조망 가능한 길이며 전시, 체험, 조망공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동 비석문화마을?”

구한 말 일본인 거류민단이 들어오면서 빈민촌이었던 이곳에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들어 섰고 해방 이후 한국 전쟁과 피난, 부산시내 판자집 철거정책으로 산으로 산으로 떠밀려온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꿈꾸며 일궈온 마을입니다.

아이동은 한문으로 '아이동(峨嶂洞)'이라고 표기 하였으며, 이곳을 아이골이라 불렀 습니다. 아이동의 토박이들은 보통 '애미동'이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명에 대하 서는 '애막(움집)'이라는 옛 말이 변하여 아이미가 되었다는 설과, 아이동에서 내려다 보면 근처에 있던 토성이 미인의 눈섭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부산 산동네의 지역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아이동 비석문화마을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아이초장프로젝트로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아이동 주민들의 마을공동체가 활발히 운영하며 이 곳에서의 삶을 미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동 비석마을 피란민주거지는 2022년 1월 5일 부산시 제1호 등록문화재로 지정, 피란민 주거지로서 부산 최초 문화재로 등록 되었으며, 부산 아이동 비석마을 피란민주거지를 포함한 9개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SKETCH BOOK	아이동비석 문화마을	탐방지도	역사 스케치	이야기 스케치	보물 스케치	공간 스케치	비석문화마을 도시재생이야기	문화재 등록	마을해설사
-------------	------------	------	--------	---------	--------	--------	----------------	--------	-------

아이동 비석문화마을 탐방지도

8

아이골 행복센터
부산무형문화재 제6호
아이동악(부산동악 전신)의
보존 및 전수공간



천주교아파트
화장과 남골문화가 발달한
일본인들의 화장장 터

가치교개로

산상교회

산상교회

1

산상교회 일대
공동묘지의 경계지점
묘지지기의 집터

C 2

D E



추모탑비문

아이골 공영주차장

5

F

피란 수도 흔적길 →

대성사
아이동악 상쇠기능보유자
(故) 김한순 스님 창건
창건 시 묘지비석을 모아
쌓은 탑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비석이 있음



A



놀이터

피란시절
천막으로 지어진
공민학교가 있던 자리
아이동악 발원지

놀이터

4

6

감천문화마을



7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천마산 산부마을 흔적길 →
300mm

B

거점시설

- 1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
- 2 비석문화마을 피란생활박물관
- 3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 4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
- 5 골목갤러리
- 6 기차집 예술 체험장
- 7 최민식 갤러리(아이문화학습관)
- 8 아이골 행복센터

문화유적

- A 대성사 일본인 위령탑
- B 아이초등학교 뒤편, 불상
- C 묘지위의 집 하교방(비석주택)
- D 화장실에서 발견된 일본 불상
- E 집에 축대로 사용된 비석(비석군집)
- F 비탈길 위에 돌집

• 아이성당

▲ 천마산

묘지 위의 마을 비석문화마을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1.

일제 강점기 이전에 북병산과 자갈치 시장, 용두산 사이에는 송현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부산항을 매립하기 위해 그 산을 깎아서 사용했다 합니다. 그 산 주변이 일본인들이 살던 왜관이 있던 곳이라 일본사람들의 묘가 있었는데, 산을 깎아 내면서 그 묘들은 아이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

사람들은 젊은 시절엔 모험을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죽은 일본인들도 아마 자신들의 고향인 일본을 그리워했겠지요. 그래서 묘를 바다가 보이던 여기 산에다 모신 것 같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에는 자기들이 살던 일본이니까, 죽어서라도 고향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말이지요.

윤지선 [비석문화마을 주민]

3.

해방 즈음만 해도 부산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방이후 귀국동포들이 부산항으로 입국하고,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구에 비해 평지에는 살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으로 산으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다 보니 묘가 있었던 아이동까지 온 것이지요.

앞뒤 가릴 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게 됩니다. 산속이든 묘지 위든 우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사가 심했던 이곳에서 묘지 터는 집의 축대로 사용할 수 있어 집짓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묘지위에다 비석과 상석 등을 사용해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을이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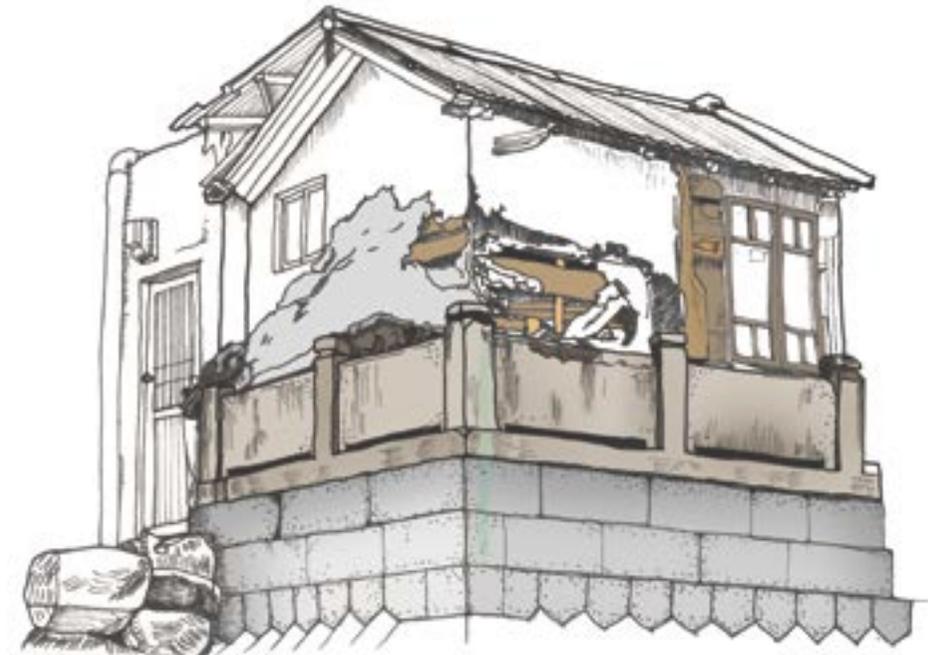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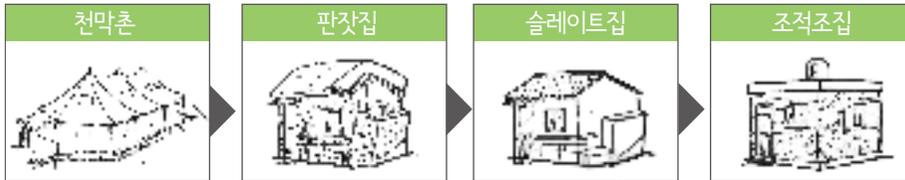


집의 축대 혹은 자의 심터 위에 산 사람의 안식처가 되었던 묘지 터



묘지 위에 판자로 지붕을 받들고 루핑을 덮은 피난시설 집

아미동의 주거지 변천사 (피난시절~현재)



일본인 묘지 추정도 참조 : 일본인 묘지(비석)마을, 아미동 산의 19번지 [주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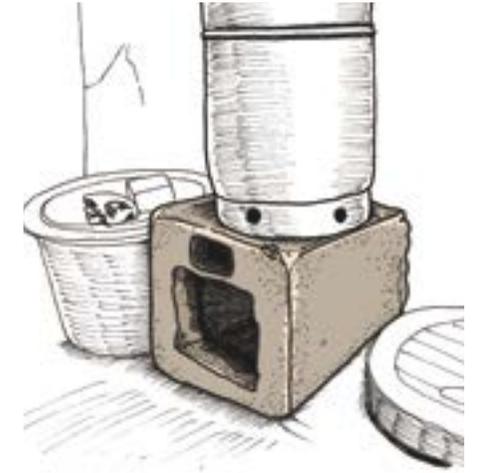
비석문화마을에서는 비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묘의 터는 경계석과 외곽벽이 있어 집의 축대로, 비석과 상석은 마을의 계단, 바닥, 담장, 문지방 등 건축자재로 이용했으며 지금도 가스통이나 쓰레기통 등 시설물의 받침대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단 및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비석



문지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석



담장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비석



받침대로 활용하고 있는 비석



어떻게 비석문화마을에 터를 잡으셨나요?

1953년 휴전이 되자 부산이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서 부산인근에 수용되었던 피난민들, 일본에서 귀향한 이재민들 등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왔습니다.

다들 장사라도 하면 먹고 살겠지 하는 마음에 부산역 앞 부산일보 옆 골목에 집걸 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여기로 모이니 부산역 앞이 너무 복잡해서 부산시의 골칫거리가 되었나 봅니다.

부산시에서는 며칠마다 한 번씩 와서 쪽지를 주며 아미동, 청학동, 당감동, 대신동 천마산 등으로 분류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물어 물어 와보니 공동묘지가 있는 산꼭대기였지요. 우리 가족은 계단식 축대 옆에 벽이 둘러져 있는 약 4평의 개인 묘지에 샬터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위험한 축대 밑을 피해 다른 천막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나무로 틀을 짜 흙을 채워 벽을 만들어 살았지요. 이 천막집들이 판잣집으로, 루핑집으로, 스텐집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와 지금의 양옥집까지 왔습니다. 우리집을 지을 때 땅에서 묘비석과 납골호가 나왔는데, 이건 땅속에 함께 묻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언 60여년을 살다보니 이 동네가 나한테는 이전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부산역 앞으로 갔었지요.

거기서 부산시 공무원이 종이쪽지 한 장이랑 텐트를 주면서 이곳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종이쪽지에는 '아미동 산19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목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 離郷(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비석문화마을에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동네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물을 여다 먹는 것입니다. 저 아래 자갈치 시장즈음에서 물을 한동이 이고 오는데, 물이 출렁 거려서 집에 도착 해 보면 반동이만 남아 있고 몸은 다 젖고, 하루종일 물을 길러도 4동이밖에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일부 수도가 들어와서 4동에 100원씩 주고 사먹게 되었는데 한해는 가물어서 물 기르는 사람들의 줄이 저~큰길까지 섰었습니다. 수도가 있는 집에서 양철동이를 주~욱 대놓으면 하루에 두동이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길어다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을 여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수구가 큰길에만 있어서 골목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물도 전부 들어다 버려야 됐었어요. 길어다 먹는 것도 일이지만, 그 꾸정물을 갖다 버리는 일도 일이었지요. 그때는 여기 살았던 사람들 모두 물 때문에 고생을 한뭇치씩 했었습니다.

제가 시집왔을 때, 골목 넓이가 사람 하나 다니기에도 힘들었어요. 이곳은 부산시내에서도 오지마을이었던거죠.

집은 3~4평의 단칸방이라, 식구들이 다 잘 수도 없어서, 어른들은 좁은 골목에 가마니를 깔아 놓고 잠을 잤습니다.

밤이 너무 어두우니까 술마신 사람들이 누워 있는 어른들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었는데, 어른들의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곤 했습니다.

밟은 사람들은 도망가곤 했습니다.

윤지선 [비석문화마을 주민]

어떻게 비석문화마을에 터를 잡으셨나요?

아미동이 다니마치(곡정)로 불리던 일제 강점기, 일본순사들은 다니마치 어린이들만 골라 때리곤 했습니다. 아미동 어린이들은 순사에게 맞을 줄 알면서도 자신은 다니마치에 살고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순사들이 아미동 어린이를 때리는 이유는 아미동 주민들은 경찰력으로 통치하기 어려운 거친 존재이며, 사건·사고가 많아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말을 타고 순찰을 돌면서 말을 시장 안에 몰아넣어 주민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채소 등을 마구 먹도록 내버려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모씨라는 인물이 일본 순사들을 보면 패거나 칼을 빼앗아 버리고, 모자를 던져서 하수구에 집어넣는 등 아미동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본 순사들은 한낱 깡패이자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겼지만 주민들은 항일 투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항정신에 힘입어 아미동 어린이들 또한 일본 순사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다니마치에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석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 離郷(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아미동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나 한국전쟁 때 피난 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저항 의식, 정신력, 단결력이 강하셨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 생활수준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열악할지 몰라도 정신문화만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따라갈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일본순사들에게 저항했던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아미농악을 무형문화재로 까지 발전시켰던 분들이라든지, 새벽같이 일하러 다니시던 개미같이 부지런한 어머님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미동은 삶의 터전을 잡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김 소 [비석문화마을 주민]

여기가 공동묘지인건 알고 계셨나요?

6.25사변이 발생했을 때 와서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전에 피난 내려왔고 우리는 대구 팔공산까지 후퇴하고 다시 올라가고 나서 왔어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그 시절 상황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어요.

마을로 올라 올땐 몰랐는데 와보니 공동묘지였어요. 뼈도 많고, 그때는 비석이 얼마나 많았다고... 지금도 거리에 담 쌓은데는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사람들이 비석을 빼서 가져 가기도 했어요.



불편한거는 배고픈거 이상 더 있나요.

먹는거는 짬이 있나 뭐가 있나, 강냉이 가루 그것도 관에서 풀어줘야 되지, 조금만 줘서 풀어서 먹고 말도 못해, 그것도 관에서 줘야 먹어요

곽현순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 2016년 아미·초장동 1차 아카이빙 구축 사업

어려운 시절 여기 사람들은 무슨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23살에는 술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감천에 태극도 믿는 사람들이 몰려 왔었어요. 사람들이 시내로 가서 나무고 종이고 전부 주워서 올라갔는데, 가는 길에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45살인데 그애 놓고 하교방 살때 즈음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여기 앞에 통닭집도 짓고, 감천에 17번 종점이 생기면서, 이 산을 밀어버린거라 그래서 감천에 사람들이 전부 송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어요. 애는 4명인데 먹고 살 길도 없어서 노가다도 했었는데 돈은 벌어도 사람이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는데 친정엄마가 집 지어서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부터 돼지고기를 삶았어요.

껍데기도 계속 팔고...먹는거 파는 데는 우리가 최초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생선파는 곳이(동강상회) 있어요. 그 집하고 우리집 두집이 옛날에는 생선 안팔고 같이 술을 팔았지요. 감천에 배달도 가고...이리저리 하다보니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하고 돼지고기를 삶은지가 한 50년 넘었네요.

이 동네에 1950년 초, 제가 7살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나를 일본서 낳았다고 하더라고, 배타고 부모님이 들어 왔겠지요. 아버지 고향에서 몇 년 있다가 6.25사변이 나서 부산(아미동)에 왔어요.

우리 고모아버지가 산상교회 그 밑에 사셔서 왔어요. 친척이 있다 싶어서 아미동으로 왔지. 오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사람들 비석만 있고...



엄정자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 2016년 아미·초장동 1차 아카이빙 구축 사업

옛날 아미동과 현재 아미동의 주거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모든 집이 부뚜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부뚜막이 없어졌죠. 너무 신기해요.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건물의 겉모습은 다 바뀌었는데, 집터가 그대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안의 구조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2~3명, 남녀를 키우는 집은 방 1칸 부엌 1칸이 있는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공동수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물을 받으려고 기다렸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물통을 지키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 차례가 오면 가족들을 불러서 물을 가지고 돌아갔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썸인가? 그 썸 개인수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갔어요.

어른들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이 크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큰 변화는 20년 전인가? 예전 자기 땅이 없던 사람들이 불하를 많이 받아서 건물을 새로 짓고 했던게 기억에 남아요.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공공건물이 지어지면서 우리동네도 공공건물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정미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2016년 아미·초장동 1차 아카이빙 구축 사업

아미동의 생활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이 있으면?

제가 어렸을 적 저희집은 도로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새마을운동 등) 도로가 넓혀 지면서 집이 뜯겨 나갔어요.

그 때 집이 뜯기면 시에서 이주 할 수 있는 땅을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엄마가 사기를 당하셨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받은 천막(군용 천막)을 저희 동네에 설치된 큰 물탱크 위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후로 저희 집은 물탱크 집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 때 당시 재밌었던게 집집마다 이름이 다 있었어요. 탁주를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도구통집'이라 부르고, 곰탕을 끓여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곰탕 집', 매일 백수같이 놀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은 '대학생 집', 매일 중절모를 쓰고 다니시고 박식했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은 '김박사 집', 술먹고 고성방가를 하던 사람 집은 '나발이집', 이런 이름 있는 집을 매일같이 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 보따리 싸매고 부산으로 왔어요.

옛날 남편들이 여자들이 직장을 가면 못쓴다고 해서 나는 직장을 못 가지게 했는데, 남편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담배장사 하는 사람편으로 국제시장 자판에 짐 날라주는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경남 고성에서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미동으로 이사와서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
이 동네에서 산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아미동의 생활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이 있으면?

70년 대 우리 집 큰 아들이 월남 갔을 때 쫘 새마을 사업한다고 집을 뜯어 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뜯어 놓은 집들이 넘어가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돌로 막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난 뒤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수도가 났습니다. 처음 부터 각 집에 생김게 아니고 마을 군데군데 공동수도가 생겼지요. 학교에서 올라 오는 후문 쪽에 하나 세화어린이집 앞에 하나 생기고 그렇게 군데군데 생겼어요.

위쪽 마을로는 경사가 높아서 물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도에 물 한통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아서 울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가 센사람들은 세치기 해서라도 받았는데 어리버리한 사람은 물도 못 얻어 먹었지요. 물 한동이에 그 당시 5원 정도 했습니다.

허분희 [비석문화마을 주민]
참조 : 2016년 아미초장동 1차 아카이빙 구축 사업



대성사 일본인 위령탑

원기동 뒷면에는 일본서체로 대정 8년 7월 30일 산전태일 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고, 앞면에는 나무묘법 연화경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을 앞두고서 설파 하셨던 법화경의 경전 제목입니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부처에 대한 믿음으로 평화, 안정과 같은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일본사람은 타지인 우리나라 특히 여기 부산에 정착을 했잖아요. 법화경 경전의 제목으로 그들도 그들의 안녕과 어려움을 극복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성사를 세울때,
당시 주지스님이셨던
故 김한순 스님께서
마을 주변에 굴러다니던
상석을 모아 탑을 만드셨어요.

아이초등학교 뒷편, 불상



아이초등학교에 있는 불상은 수인이라고 해서 손가락 모양이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되게 독특한 것입니다. 그 불상은 아이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일본 절인 총천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여요.

해방이 되고나서 그 불상을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로 모시고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못 가져갔대요. 그래서 불상을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이초등학교가 들어섰거든요. 그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상이 원래는 화장실에 묻혀 있었는데 꺼내 깨끗하게 해서 학교 뒤로 모셔놓은 뒤로 학교에 사고가 없어져버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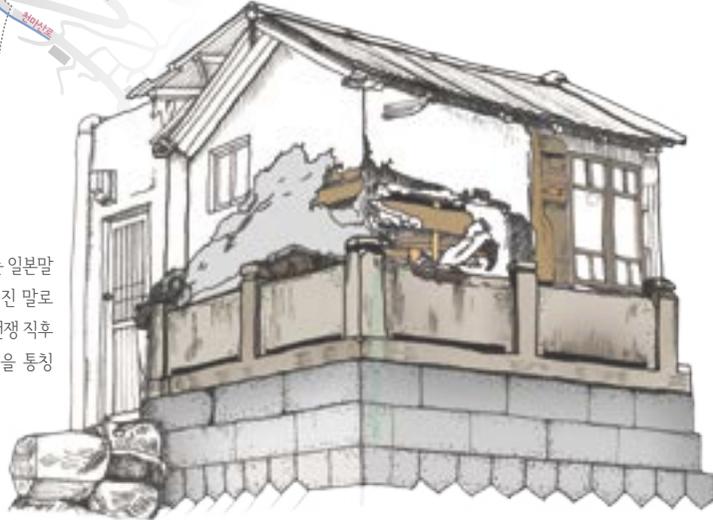
무애스님[아이산 대성사 주지스님]



대성사의
일본인 위령탑

묘지위의 집 하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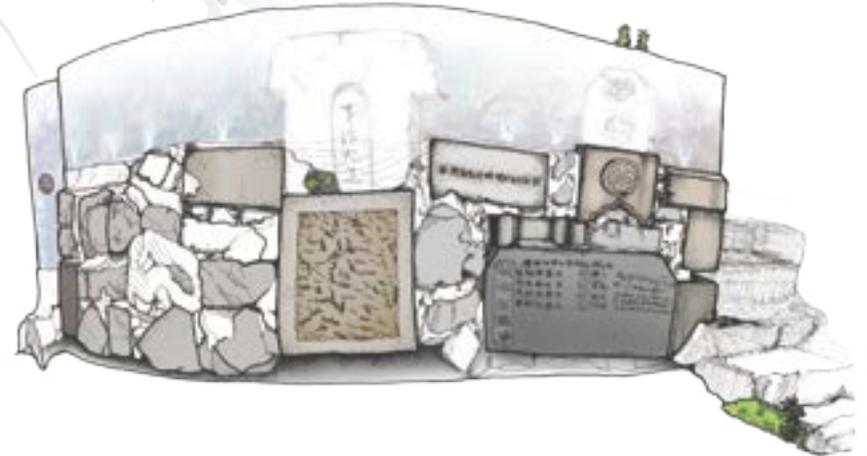
일본인들의 묘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집의 축대로 사용한 집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꼬방'은 상자/궤짝 등을 가리키는 일본말 '하코(箱)'에 한자말 '방(房)'이 합쳐진 말로 "상자 같은 방"을 뜻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만들어 살았던 판잣집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의 축대로 사용된 비석

일본인 공동묘지였던 탓에 마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석을 쌓아 집의 축대로 사용한 집입니다. 지금은 집은 허물어지고 비석 축대만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일본 불상

화장실 공사를 위해 바닥공사를 하던 중 거꾸로 땅에 박혀있던 불상과 상석을 발견했습니다.



비탈길 위에 돌집

돌로 지은 3층 건물로 산비탈을 이용하여 만든 돌집입니다. 집주인의 부친이 해방과 함께 아미동에 정착하면서, 천마산 일대 등에 널려 있는 돌을 주어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올려 직접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알리고 마을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안내공간과 웰다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 안내센터 소개

3층 안내센터

- 비석문화마을 안내 공간 및 마을 콘텐츠 전시
- 거울 포토존 및 테이블 공간

2층 프로그램실

- 다수 인원의 모임활동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 공간
- 웰다잉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

1층 사진관 & 야외 전시장

- 꽃관 컨셉의 사진 및 영정사진 등 기념촬영공간
- 촬영 준비 영역 및 사진 인화 작업 공간
- 야외 테라스 : 사진 인화 대기 및 야외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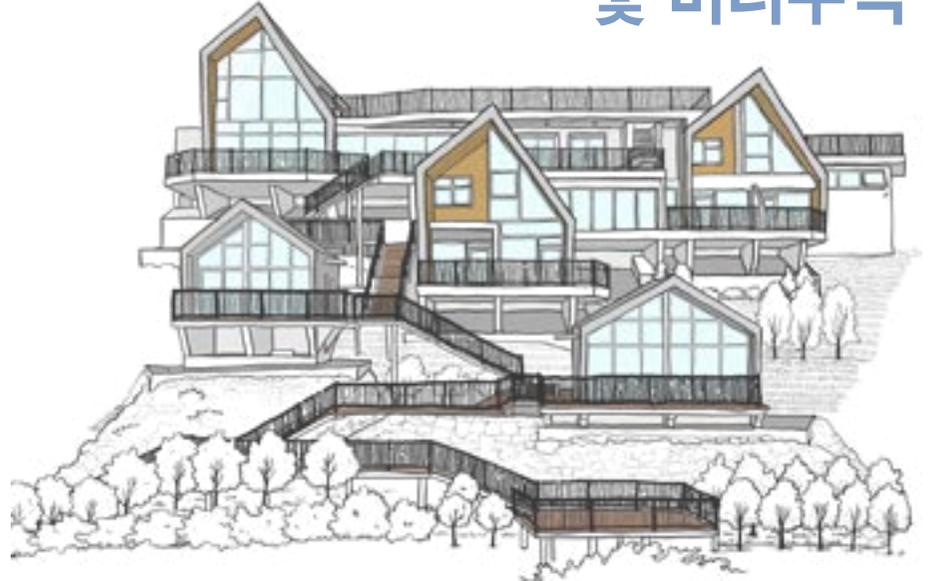
비석문화마을 피란생활박물관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피란민촌으로 총 9채의 주택을 개조하여 당시 피란민들이 살았던 모습을 재현하여,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고단했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숙소제공 및 산복도로 중·장기 체류형 거주 공간 제공으로 신규 정착민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공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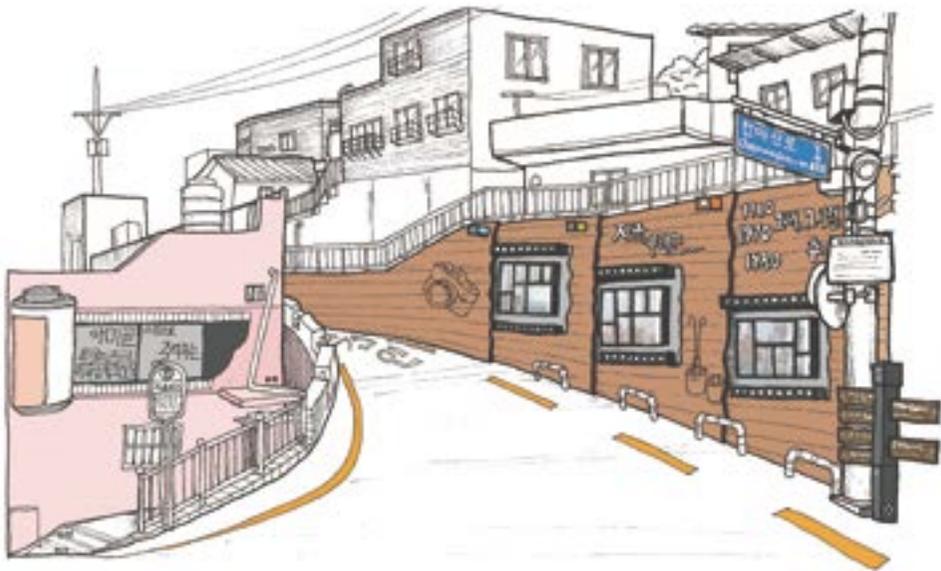
부산의 풍경과 바람을 만나는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

부산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으로,
포토존에서는 개성만점의 캐릭터 조형물들과
유쾌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때 그시절 골목 갤러리

‘그때, 그시절을 추억하며’를 주제로 1960~80년대
우리 사회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故 최민식 선생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미맘스가 운영하는 기찻집 예술체험장

마을주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아미골협동조합이
(주로 아미초등학교 어머니들의 모임인 아미맘스)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쉼터이자 카페입니다.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갤러리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미문화학습관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을 비롯하여 근현대 사진을 상시 전시하고 있는 최민식작가 사진갤러리, 방문객을 위한 카페 및 부산 앞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 있습니다.



최민식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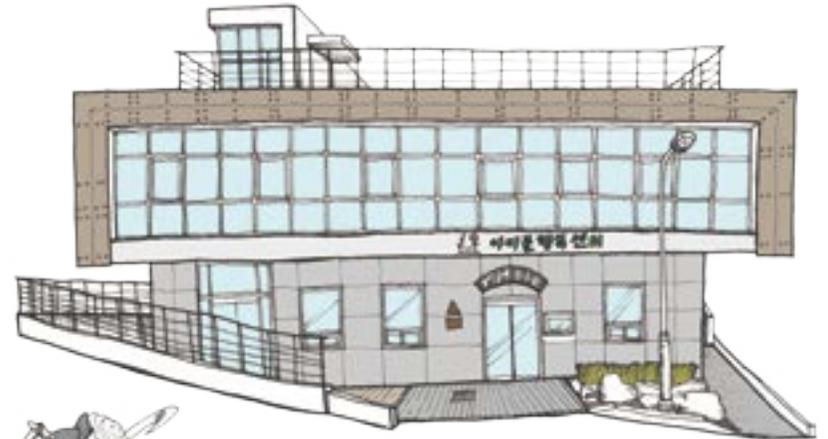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의 현장을 담은 내 사진은 ‘배부른 자의 장식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라는 말을 남긴 최민식 작가는 인간 중심의 작품을 남긴 대한민국의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젖을 물리는 어머니, 길거리의 부랑자 등 서민들의 고단한 삶 등을 작품으로 남겨, 리얼리즘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찍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 고초를 격기도 했지만 인간의 현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인간을 묘사함으로써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미농악 전수관이 있는 아미골 행복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 가는 방향에 2층 규모로 건립된 행복센터는 주민주도의 마을 역량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며, 1층은 1980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부산농악(아미농악)을 전승·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부산농악의 전신 아미농악

아미동은 피난 시절 다양한 지역의 풍물꾼들이 유입되면서 연희 농악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1952년 전국에서 피난 온 풍물꾼들이 부산 풍물꾼들과 함께 풍물패를 결성 하게 됩니다. 부산의 고분도리걸립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지역의 풍물가락과 춤사위가 더해지면서 세련되고 정제화된 연희농악으로 발전하였고, 곧 전국의 각종 농악경연대회를 휩쓸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는 국가 주요 행사의 공연단체로 선정되는 등 한국 최고 풍물로 평가 받았습니다.

1980년 2월 2일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면서 아미농악이 부산농악으로 개칭되었으며 구덕망개 터다지기와 부산고분도리 걸립으로 계승 되고 있습니다.

참조 : 離鄉(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2016년~2023년

A 평생 살고 싶은 마을 정주환경 개선

- 1 마을지기 집수리사업단 운영
- 2 마을배란다 공동이용장 조성사업
- 3 우리동네 쌈지마당만들기사업
- 4 안심골목 안전도로 조성사업

B 활기 가득한 마을 근린경제 활력

- 1 우리동네 복덕방 사업
- 2 비석문화마을체험게스트하우스사업
- 3 마당이 있는 미니주택 보급사업
- 4 근린상권 활력사업

C 매력 넘치는 마을 역사문화 보존

- 1 아미로100년근대역사카로화사업
- 2 아미·초장탐방로구축 및 홍보사업
- 3 하늘경관 정리사업

D 함께 만드는 마을 주민참여 확산

- 1 주민역량강화사업
- 2 아미·초장 하자마을
- 3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피란수도 부산유산이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냉전기 최초 전쟁인 한국전쟁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히 활용돼 1023일 동안 피란수도로써 기능을 해온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출한 증거물이며, 한국전쟁이라는 격동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지켜내고,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한 피란민들의 희망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부산시는 2015년부터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Busan Wartime Capital)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2023년 10월 유네스코 잠정목록으로 경무대, 임시중앙청,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주거지 등 9곳이 포함된 연속유산을 유네스코 공식 누리집 게시를 완료하여, 등재를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하였으며, 최종 등재를 위해 보완연구와 개별유산 보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한국전쟁과 부산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임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쟁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의 가치, 국제협력과 인류애의 메시지, 부산의 문화 등을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연속유산이란,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유산지를 포함한 문화/자연 유산을 말합니다

부산시 서구의 피란수도 부산유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문화재 등록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시설, 정치·경제·문화·주거의 중심지였던 부산시 서구에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주거지 3개의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입지하고 있으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피란민주거지 최초로 2022년 1월 5일 부산시 제1호 등록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의 의미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동서양 건축 자산,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 및 각종 공공기관이 융합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수도 임에도 무려 1023일 동안 장기 유지되었고, 도시 용량을 훨씬 초과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한 것 또한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부산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부산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의 근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전후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조 : 부산시 홈페이지, 피란수도 부산유산 소개코너 & 관련기사



“마을해설사 안내”

구한말 일본인 거류민단이 들어오면서 빈민촌이었던 이곳에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들어섰고 해방이후 한국 전쟁과 피난, 부산시내 판자집 철거정책으로 산으로 산으로 떠밀려온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꿈꾸며 일궈온 마을.

위 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원 (아미로 46 안쪽 아미로 34번길, 38번길, 30번길 및 천마산로 일원)

투어코스 : 투어시작 지점 - 산상교회 앞

산상교회 ▶ 비석주택 ▶ 비석군집지 ▶ 불상발견지 이용원 ▶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
▶ 기찻집 예술체험장 ▶ 아미문화학습관(최민식 갤러리) ▶ 천마산 힐링라인(선택사항)

해설사 배치

가. 정기배치: **매주토, 일요일** [1회차: 10시 ~ 12시, 2회차: 14시 ~ 16시]

나. 대상 및 비용: **참여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무료**

다. 문의 및 예약

- 1) 서구청 창조도시과: 051-240-4231
- 2) 기찻집 예술체험장: 051-246-8899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찾아오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지하철 1호선 토성역 6번 출구
→ 마을버스 1-1·2·2-2 환승

지하철 6번 출구로 나와 부산 대학교병원 암센터 앞에서 마을 버스로 환승 한 후 **산상교회·비석 문화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자가용을 이용하시려면

아미골 공영주차장에 주차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12-8번지)

토성역 앞 교차로 아미동주민센터(까치고개로) 방향
→ 회전교차로 진입 → 남부민동 방향 → 아미초등학교 우회전 → 약 400미터 이동 공영주차장 도착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로 42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하철 토성역(부산대학교 정류장) 하차
또는 자갈치역(충무동교차로 정류장) 하차
> 서구 2(마을버스)승차
> 산상교회·비석문화마을 정류장 하차

자차이용 : 아미골 공영주차장 주차 > 도보 이동



발행일 : 2023년 12월
편집 및 발행 :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전화 : 051) 240-4231~5
홈페이지 : www.bsseogu.go.kr